

2018년 오픈도어 연주 캠페인

아프리카 지역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 교재 개발

아프리카 지역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용 성경 공부 교재를 개발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목표 금액: 800만원 ■ 은행계좌: 우리은행 161-099071-02-101

아시아 지역 순교자 자녀와 미망인 돌봄 사업

아시아 지역에서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을 돌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순교한 분들의 가족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목표 금액: 3,500만원 ■ 은행계좌: 신한은행 100-027-219169

중동 지역 가족 트라우마 치유 사업

중동 지역에서 전쟁과 내전으로 상처 입은 기독교인 가족들을 치유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겪은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목표 금액: 1,800만원 ■ 은행계좌: 우리은행 1005-001-884989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osk@opendoors.co.kr



Open Doors(등록번호 성목 라 00066) 부록

“내 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시편4:1-2)

아시아(Asia)

1일(화) 북한(North Korea)

북한에 마약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불안과 삶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 잘사는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마약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또 마약 확산이 중단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마약 대신 필요한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일(수) 북한(North Korea)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죽음을 각오한 신앙과 헌신이 한반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믿습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디오 복음 방송을 비롯해서 성경과 복음 서적 등 필요한 물자들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또 생존을 위한 생활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더 나아가 북한의 성도들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 한국의 귀한 일꾼이 되어 북한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일(목) 네팔(Nepal)

네팔 정부의 규제 강화로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의 모금, 설립, 사회 참여가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헌법은 개종에 대해서 5년이하의 징역을 못박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

다. *네팔 내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네팔정부와 관료에 변화의 새 바람이 일도록 기도해 주세요.

4일(금) 부탄(Bhutan)

많은 불교배경의 신자들이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치유, 환상, 꿈을 통해 부탄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부탄 사람들이 주님께 민감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5일(토) 라오스(Laos)

주로 시골 외곽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빈곤하고 의료 시설과의 거리가 멀어 적절한 의료 및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해 의료 선교를 통해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소외된 라오스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선교가 잘 준비되고 실행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6일(일) 중국(China)

남부 무슬림배경의 마을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배제 때문에 올바른 직업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종교 규제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교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어서 중국 남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 피폐해 질 것입니다. *시진핑 체제 아래 거세지는 박해 속에서 주께서 중국 교회와 지하교회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남부 무슬림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7일(월)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은 자국민의 기독교 개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벗어난 사고 방식조차 모두 반역죄로 여겨집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북한과 같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슬림 무장 단체인 탈레반 치하에 있는 일부 지역은 테러와 폭력에 쫓겨져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이 줄어 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1만 5천명(0.05%)으로 추정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8일(화) 미얀마(Myanmar)

기독교 연합뉴스는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이 불교적 배경의 군대, 탕마도우(Tatmadaw)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공포로 인해 자신들의 집에 잠을 자러 가지도 못한다고 전합니다. *오직 믿음의 이유로 공포와 폭력에 시달리는 미얀마 기독교인들에게 참 소망과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또한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9일(수) 방글라데시(Bangladesh)

방글라데시 내 대부분의 무슬림배경의 신자들(MBBs)은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적 생존을 위해서는 강력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에 평신도 지도자 훈련(LLT)과정을 개설하여, 필요한 성경교육과 리더십 등을 훈련하게 됩니다. *평신도 지도자 훈련 과정을 통하여 무슬림배경신자들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평신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일(목) 몰디브(Maldives)

몰디브 내 사우디 아라비아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 와하브운동(Wahhabism)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이슬람 원리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초 강경 이슬람 운동입니다. 그 결과 많은 몰디브 인들이 전통적인 이슬람을 떠나 급진적인 성향을 띄도록 강요 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슬람 극단주의 자들의 성장과 전횡이 꺾이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리카(Africa)

11일(금) 에리트레아(Eritrea)

에리트레아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자의적 체포, 무차별 억류, 납치, 노예화 등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인권 보고관은 에리트레아 정부가 인권개선을 위한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정부는 인권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리트레아 시민들의 취약한 인권을 위해서, 특별히 차별과 학대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2일(토) 나이지리아(Nigeria)

샤리아(Sharia, 이슬람법)에 의해 통치 되는 북부 나이지리아 지역의 기독교 학생들은 지방 정부와 공공 기관으로부터 교육, 의료, 복지와 같은 기본 사회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교육의 권리에서 배제됨으로 인한 어려움이 큼니다. 이에 오픈도어는 2005년부터 4개 주에서 상황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부자들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과 배제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4월호와 동일)

13일(일) 콩고(DRC)

이슬람무장민중연합단체는 북부 키부(Kivu) 지역의 대다수 기독교인

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을 활동 거점으로 삼는데 성공했으며, 수백만 명을 죽이고, 수천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오픈도어는 이 지역의 교회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으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지난 7월 기독교인 가정에 생필품과 구호품들을 전달했습니다. *북부 키부 지역 및 콩고의 모든 지역이 회복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힘겨운 상황에서도 콩고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4일(월) 말리(Mali)

말리 박해의 주요인인 이슬람 탄압으로 인해 50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억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과 기독교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지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북부지역에 거주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남부에 위치한 수도 바마코(Bamako)나 중부지방의 마을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에서조차 난민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5일(화) 케냐(kenya)

플라니족은 99%가 무슬림인 유목 민족으로, 주로 나이지리라, 말리, 기니, 카메룬, 니제르에 거주합니다. 이들은 가장 열렬한 극단적 이슬람교도이기도 합니다. 12세에 소녀는 결혼을 하며, 일부다처제의 문화 속에서 고통 당합니다. 이 종족 내 소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통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이 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여인의 기도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종족 가운데 비추이기를 기도해 주세요.’

16일(수) 아이보리 코스트(Ivory Coast)

무슬림 배경의 그리스도인 실루네(Silue)의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가족들은 늙은 무슬림 남자의 네 번째 부인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실루네가 계속 거부하자 그들은 실루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집에서 쫓아 내었습니다. 현재 한 교회에 머물며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가 신실한 한 여성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실루네와 같은 수많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7일(목) 소말리아(Somalia)

수년간의 전쟁과 무관심으로 이 나라의 경제적·사회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75만명이 넘는 사람이 국내에서 추방되었고, 전쟁으로 50만명이 죽었습니다. 전쟁과 쿠데타, 특히 과격 이슬람 때문에 해외에서 원조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밀수업자, 노상강도, 해적, 테러범들을 양산했고,

취약 계층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가속화 시켰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질서와 안정을 추구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과격 이슬람 세력이 무력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8일(금) 케냐(kenya)

케냐 북동부 가리사(Garissa) 대학에서 15년 알사랍의 공격으로 148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는 여전히 고통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주된 공격의 대상이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기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케냐의 수많은 그리스도인(3천 9백만명)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한 이들이 복음을 들고 흩어져 생명을 퍼뜨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9일(토) 차드(Chard)

차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라는 좋지 않은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족, 인종,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북부와 남부 지역의 대립으로 안정적인 국가 운영 또한 어렵습니다. 다르푸르에서 결성된 무장세력과 반란 세력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 경제적 발전과 기독교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차드 정부의 무능과 부패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한 부족주의로 인한 기독교 박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0일(일) 북 아프리카(North Africa)

아프리카 북부는 알사랍(Al-Shabbab)과 보코하람(Boko Haram)과 같은 이슬람 무장세력의 득세로 수년간 헤드라인을 장식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 보고에 의하면 보코하람으로부터 8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통 당했습니다. *사하라사막 이남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이 초토화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무장 세력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도록 기도해 주세요.

21일(월) 북 아프리카(North Africa)

과거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은 세력을 확장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지만, 지금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자금 지원으로 소말리아, 케냐,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 정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의 손과 발이 묶여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동(Middle East)

22일(화) 예멘(Yemen)

극심한 내전 중에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vbia)로 부터의 포탄 공격이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80%이상의 예멘 국민들이 원조

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삶이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 불쌍한 국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3일(수) 시리아(Syria)

250,0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1/3의 아이들만이 학교를 다니며, 먹을 것은 부족합니다. 50% 이상의 의료시설은 파괴 되었고, 냇을 잃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절반은 실랑민이 되었습니다. *살수 없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UN과 세계열강들이 함께 시리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4일(목)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bia)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노동시장을 차지 하고 있고, 이들 이주 노동자들은 그들의 국적과 종교로 인해 쉽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 이주 노동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심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사회약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종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5일(금) 이라크(Iraq)

1980부터 전쟁과 소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전쟁과 폭음, 죽음의 한 가운데서 태어났으며 살아 왔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희망과 밝은 미래를 포기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이라크 백성에게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께서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4월호와 동일)

26일(토) 모리타니아(Mauritania)

사하라사막 이남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어린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모리타니아 시민권이 주워지지 않아 ‘나라 없는 사람들’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리타니아에서 태어난 비-무슬림 자녀들은 출생증명서조차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리타니아에서 태어나거나 생활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어린이들에게 하루속히 시민권이 부여되어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받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7일(일) 레바논(Lebanon)

전쟁으로 인해 자국이 아닌 레바논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수많은 시리아 아기들이 출생등록과 신분증 없이 레바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에게 부모와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회복되어 맘껏 뛰어 놀며, 학교에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8(월) 이란(Iran)

이란에서의 박해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광기가 이슬람교적 탄압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란의 이슬람 정부는 1979년 발생한 이슬람 혁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여깁니다. 기독교는 지탄 받을 만한 서구의 세력이자 이란공화국의 이슬람교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란을 덮고 있는 이슬람의 광기가 사라지고, 빛 되신 그리스도가 온 땅에 비추이도록 기도해 주세요.

29일(화) 쿠웨이트(Kuwait)

일부 선교사들은 쿠웨이트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독교인들은 자유로이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며, 무슬림 세력은 폭력성을 증가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자유도 희박합니다. *쿠웨이트에 새로운 움직임과 변화의 바람이 주께로부터 불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30일(수) 알제리 (Algeria)

알제리는 2018년도 기독교박해지수 42위로, 박해는 기독교인들의 일상 가운데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힘 주심과 견고케 하심을 알제리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령 06-03 조항은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규제함으로써, 교회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1일(목)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도우심 속에서 사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서 세워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이사장 및 공동대표: 김성태 교수, 공동대표: 신현필 목사, 사무총장: 이종만 목사, 이사분들, 사역자들). *한국오픈도어가 전세계 핍박 받는 교회들을 위한 애타는 심정과 진심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후원자 분들과 기도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